

동방신기, 5명 함께 일본활동 재개

입력 2009. 10. 29. 22:20 · 수정 2009. 10. 29. 22:20



[한겨레] 법원이 지난 27일 동방신기 세 멤버의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동방신기 멤버 5명(사진)이 다시 일본을 찾아 본격 활동을 재개한다.

일본 <데일리스포츠>는 동방신기의 일본 소속사인 에이벡스(avex) 관계자 말을 인용해 동방신기가 올가을 일본을 다시 찾아 일본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말에 열리는 '제51회 TBS 일본레코드대상'(일본작곡가협회 주최)과 최대 가요축제인 '제60회 NHK 홍백가합전'의 스케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29일치 <산케이스포츠>도 인기그룹 동방신기가 내년 1월7일 시작하는 NHK의 새 드라마 '도메하넷! 스즈리고교 서도부'의 주제가 '브레이크 아웃(BREAK OUT)!'을 부르게 됐다고 전했다.

동방신기는 NHK로 방영된 배용준 주연의 '태왕사신기' 주제가인 '천년연가'를 부른 적이 있다.

NHK 측은 "동방신기는 현재 가장 인기를 모으는 그룹"이라고 설명했고, 리더 유노윤호는 "뭔가에 대해 노력하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